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과 안전효능감

김 의 철 박 영 신 박 동 현
중앙대 심리학과 인하대 교육학과 인하대 산업공학과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상을 토착심리학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는데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이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이 청소년의 안전효능감수준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서 안전효능감이 학교수준별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고, 가정환경이나 본인의 성취정도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분석대상은 1,074명이었다(초등 200명, 중 241명, 인문고 206명, 실업고 221명, 대 206명). 분석 결과, 가장 피해가 컸던 안전사고로 '놀이/장난 중 사고' '교통사고'가 지적되었으며,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자기조절결여: 부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사고 후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서 부모가 가장 중요하였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기조절: 주의/조심'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시설/환경정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표상을 청소년의 안전효능감 수준별로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안전효능감은 중간정도 수준이었으며, 학교수준별로는 초등학교생이 가장 높고 대학생이 될수록 안전효능감이 낮아졌다. 안전효능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및 본인의 학업성적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주요어 : 안전효능감, 안전사고 원인, 토착심리학적 접근, 자기조절

한국사회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의 필요성 수가 한국은 8.4명이고 일본은 1.2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교통질서 준수율을 비교한 결과 (대한손해보험협회, 2000)에 의하면, '안전띠 착용'에서 한국은 48.6% 일본은 82.8%로 거의 두 배에 가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위이다. 1999년에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운 차이가 있었고, '교차로 통행방법 준수'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이 98.1%로 거의 100%에 가까운데 비해 한국은 75.5%에 머물렀다. 이와같이 교통안전의식의 부재와 교통안전행동의 결여는, 외국인의 눈에 "한국 버스는 청룡열차(Roller coaster)와 같다"고 비칠 수 밖에 없다. 이순철(2000b)은 교통사고의 한국적 특징으로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보행자 사망자가 40~50% 수준을 유지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교통문화 수준이 미흡함을 의미한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의 운전자들에게 일년동안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의해 교통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한국의 47.1%, 일본의 31.2% 운전자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미국은 5.8% 캐나다는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순철, 1991; 이순철, 2000a). 아동의 사망사고 유형에 대한 조사결과(통계청, 2000)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이 47.5%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고, 그 외에 '익사' '추락' '화재'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교통사고 외에도 한국사회 곳곳은 안전으로부터 무장해제지역인 듯한 인상을 주는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길거리가 아닌 청소년에 대한 교육 환경은 어떠한가. 2001년 5월, 광주에 있는 사설교육 시설인 예지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진화까지 30분만 소요되었고 재산피해가 403만원 밖에 되지 않았는데, 학원에서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던 청소년이 9명이나 사망하는 큰 피해가 있었다. 휴게실에 버려진 담뱃불로 인한 단순과실이 원인이었다. 물론 담뱃불을 무시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결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인화성이 강한 조립식 칸막이들로 학원이 불법개조되어 있었고, 교실내의 쇠창살은 긴급상황에서 대피를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화재정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산업현장을 보아도 예외가 아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2000년 한해동안 사망한 사람이 2,528명이고, 총 재해자수가 68,976명이나 된다는 통계자료(한국산업안전공단, 2001)는, 한국 기업의 풍토가 안전하지 못

함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재해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사례조사(박영신, 김의철, 송동빈, 박동현, 한상환, 2000)를 통해 밝혀진 한국기업의 안전문화 실상은, 재해로 전신이 마비된 건설작업자나 양손이 절단된 프레스공의 모습처럼 매우 비관적인 것이었다. 인적 요인 면에서 볼 때, 작업자들은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었고, 안전효능감이 낮았다. 또한 관리자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눈가림식 적당주의는 작업자들에게 강한 불신을 조장하였다. 작업환경 면에서 안전시설은 낙후되어 있었고,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처절한 현실을 병원에서 매일 체험하는 산업의학자들,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문제에 늘 부딪치는 산업공학자들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종사자들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사고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가? 왜 이러한 안전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이러한 현상들과 관련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심리나 행동을 유발하는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대구가스폭발사고,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지만, 그것이 단기간의 신문기사 정도로 지나가 버리는 식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근처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 눈을 돌리고 지속적이며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것은 Moscovici가 그의 사회적 표상이론에서 개인심리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기 보다 사회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시각과도 관련된다. Moscovici가 지적하고 있는 바처럼 "사회적 표상은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사상들에 대해 사람들이 공유하는 의미와 설명체계를 제공해 주고 해석양식을 부여해 줌으로써 사회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최상진, 1990)면, 그러한 사회적 표상에 대한 이해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사고의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

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에 틀림없으며, 그러한 문제의 근원에 자리잡고 있는 심리행동적 메카니즘에 대해 심리학자들의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안전 사고가 인간의 생명까지 쉽게 빼앗아 버리는 치명적인 현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러한 주제가 심리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가 미래에 보다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은 사회로 되기 위해서,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의식을 규명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양식이 미래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 사회로 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력있는 예측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은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안전사고 문제를 심리학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는데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이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 표상이 청소년의 안전효능감수준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안전효능감이 학교수준별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고, 가정환경이나 본인의 성취정도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안전사고 표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이라는 조망의 틀과 안전효능감이라는 심리학적 구인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선 전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 청소년들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어떠한 표상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표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저한 특징들로부터 어떠한 심리적 행동적 설명 기제를 찾아낼 것인가 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는 이론적 체계로서 이 연구에서는 토착심리학적 접근(Kim, 2000; Kim, & Berry, 1993; Kim, Park, & Park, 2000)을 채택하고자 한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내용 그 자체가 의미있고 가치를 지닌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안전하게 살고 싶은 인간 보편으로서의 욕구(Maslow, 1970)를 갖고 있고, 전통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회피(Hofstede, 1995)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심리적인 풍토 속에서, 안전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양식이 따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한국 사회의 많은 현상들은, 일견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한국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심리와 행동의 괴리들에 대한 관찰은, 한국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토착적 의식을 규명해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Kim(2000)은 토착심리와 문화심리 및 비교문화심리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인식론적인 고찰을 통해, 토착심리의 주된 목표는 사람들이 특정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토착심리학자는 의미있는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간 행동을 연구하며, 토착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아래에서 위로의 모델구축적 접근을 지지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인간의의식, 작인, 의미, 목표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설명하는 중심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기계적인 지식을 탐색하기 보다는, 인간 행동에 대한 확률적 이해의 탐색 과정에서 가치가 부가된 활동으로 연구를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에서의 주제와 자극은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라기 보다, 의미가 있고 맥락화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 기능의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추구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선형적 접근을 채택하는 전통적 심리학의 시각과 상치된다. 선형적 접근에서는 실험이라든가 추론과 같은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객관주의 논리실증주의 보편주의와 같은 과학철학을 채택하므로써, 복잡한 행동을 구성하는 인간행동의

법칙들을 추적하려고 한다. 이러한 심리학에서의 목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객관적 추상적 보편적 관계를 발견하는데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식이나 작인, 의미, 의도와 같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측면들은 연구설계에서 잡음으로 고려되어 제거된다.

Sinha(1993)는 인도의 학문이 서양 학문에 종속화되어, 예컨대 카스트제도와 같이 서양에 없는 현상을 서양의 이론적 틀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임을 지적하였다. 물론 서양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인도 것만 옳다는 배타적인 태도도 잘못된 것이므로, 표면적인 토착화(cosmetic indigenization)의 단계를 거쳐 서양의 이론과 인도이론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Sinha(1993)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구이론을 받아들여 인도문화에 토착화(indigenization)시키는 것도 필요하나, Kim과 Berry(1993)는 서구의 이론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의철(Kim & Berry, 1993; Kim, Park & Park, 2000)은 Sinha(1993)가 제기한 토착화의 개념과 더불어, 토착민의 개념과 의미를 다루는 토착(indigenous)심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 한, 체면, 눈치 핑계와 같은 한국인의 고유한 토착적인 개념(indigenous concept)을 연구(최상진, 2000)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보편적으로 심리학에서 다루는 개념들(psychological concept)을 토착심리학적 전제와 방법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성취(김의철, 박영신, 1998; Tak, Lee, Park, & Kim, 2001), 스트레스(김의철, 박영신, 1999), 자기(Hamm, Park, & Kim, 2001), 안전(박영신, 김의철, 2001; Han, Park, & Kim, 2001)과 같이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한국인의 표상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그동안 안전사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한국인의 토착적인 심리나 행동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예컨대 이경자, 이정렬, 강규숙과 한정석(1995)은 한국의 사고 발생 실태를 5년간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사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초로 분석하기도 하였으나, 사고발

생의 요일분포 시간분포 지역분포 연령분포와 같은 표면적인 정보의 제공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한 연구들도 사고발생 장소에 초점을 두고, 가정에서의 안전사고(이민아, 1993),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노정근, 1998)와 같은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각각의 범위 내에서 연구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학적 검토는 부족하였다.

청소년 안전사고 표상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이것이 안전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안전행동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그렇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체적인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안전한 행동이 중요하며, 이러한 안전행동의 기저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의식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청소년은 충동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한국 청소년들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회적 표상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론적이고 상식적 훈육이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의 안전행동을 설명하는 기반이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기초로 한국 청소년들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표상을 분석하므로써, 안전행동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두 번째 측면은 안전효능감이라는 심리학적 구인이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Bandura(1997)의 정의에 기초하여 안전효능감의 조작적인 정의를 '과제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실제적인 기술'(박영신, 박동현, 김의철, 1998)로 내리 고자 한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다차원성을

표 1. 표집대상

	초등	중학	인문고	실업고	대학	계
남	82	99	105	111	136	533
녀	117	140	101	110	69	537
무응답	1	2	-	-	1	4
계	200	241	206	221	206	1,074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념을 측정하는 보편적인 척도(omnibus measures)가 아닌, 구체적인 것을 측정하는 영역관련 척도(domain-linked measures)이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박영신, 박동현과 김의철(1998)은 산업현장에서 안전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작업자 집단의 경우에 '자기조절 효능감' '주위사람도움 효능감' '주위환경조절 효능감'을, 안전관리자 집단의 경우에 '교육실시방법 효능감' '작업자교육효과 효능감' '경영자교육효과 효능감'을 안전효능감의 하위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안전효능감이 높은 작업자가 더욱 안전을 실천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은 초, 중, 고, 대학생 집단의 학교수준별 성별 안전의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의식이 안전효능감 수준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인간의 행동선택과 행동지속 및 행동강도는 효능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교육 건강 조직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Bandura(1997)는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한국 청소년의 성취, 생활만족도, 이탈행동 등 다양한 행동특성을 결정함에 있어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어 왔다(김의철, 박영신, 2001).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과 안전행동도 안전효능감과 관련을 통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방 법

대 상

연구대상이 청소년 집단이므로 초 중 고 대학생 집단을 표집하였다. 총 1,074명이 표집되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533명, 여자가 537명이었다(표 1 참조). 학교수준별로는 초등학생 200명, 중학생 241명, 인문고 206명, 실업고 221명, 대학생 206명이었다. 초등학생은 5, 6학년(평균연령 11~12세), 중학생은 1학년(평균연령 13~14세), 고등학생은 1, 2학년(평균연령 16~17세), 대학생은 2, 3학년(평균연령 22~23세)이 표집되었다.

도 구

연구자가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자유반응형 문항과, 양적인 측정문항 및 기타 배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안전사고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을 분석하기 위한 자유반응형 문항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였다: (1)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가 가장 컸던 사례, (2) 안전사고를 당한 후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3) 구체적으로 받은 도움의 내용, (4) 안전사고의 원인 (5)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각 응답자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양적인 측정문항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효능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안전효능감의 하위변인은 Bandura(1997)의 이론을 토대로 박영신, 박동현과 김의철

표 2. 안전효능감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	α
자기조절	1. 당신은 피곤하고 짜증날 때에도 일을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4. 당신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일을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7. 급한 일이 있어도 당신은 무단횡단하지 않고 신호등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습니까? 10. 사고 나지 않도록, 당신은 얼마나 자기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13. 당신은 힘들어도 일을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70
주위사람 도움	2. 당신은 안전을 위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습니까? 5. 가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신은 부모님의 도움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습니까? 8.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친구들과 얼마나 잘 협조할 수 있습니까? 11. 당신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생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14. 당신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습니까?	.66
주위환경 조절	3. 당신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주위환경을 얼마나 잘 정돈할 수 있습니까? 6. 학교환경이 안전하도록, 당신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습니까? 9. 당신은 가정환경을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12. 당신은 안전장치(예: 자동차 안전벨트 등)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15.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57
안전효능감	자기조절 + 주위사람도움 + 주위환경 조절	.81

(1998)이 제작한 작업자용 안전효능감을 측정하는 세 하위변인과 동일하였으며, 측정문항은 청소년집단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이 연구에서 안전효능감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자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효능감과, 자기의 안전을 위해 주위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능감 및, 안전할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잘 통제할 수 있는 효능감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안전을 위해 개인이 자기관리를 잘해야 하지만, 주위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며, 나아가서 주위사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답지는 '전혀 못한다'에서 '매우 잘한다'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박영신, 박동현과 김의철(1998)의 연구에서 세 하위변인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alpha = .79, .83, .87$ 로 양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작된 안전효능감의 세 하위변인을 측정하는 문항 내용 및 신뢰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배경정보에서는 성별, 연령,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평균성적,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부모의 교육정도, 직업, 경제생활정도) 변인을 측정하였다.

이와같이 제작된 질문지는 모든 표집대상에게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작된 질문지의 문항내용을 모든 학교수준별 표집대상에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통해 직접적인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실시 및 분석방법

수업시간에 교사(교수)가 취지를 설명하고, 무기명으로 답하므로 솔직히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분이었다. 질문지는 1999년 12월 한 달 동안 실시되었다.

자유반응형 문항의 응답에 대해서는, 각 문항별 반응을 모두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그리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응들을 정리하고, 모아진 반응들을 대표하는 반응을 선정하여 항목(item)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항목의 명칭은 빈도가 가장 많은 반응을 가능한 그대로 하였다. 이와같이 결정된 항목들을 유사한 개념별로 정리하여 그러한 개념들을 대표하는 범주(category)를 결정하고, 범주에 이름을 부여하였다. 확정된 범주와 항목을 분석틀로 하여 각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틀에 따라 양적인 값으로 코딩하였다. 코딩한 자료를 SPSS win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을 하여 분석표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분석표를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5점 척도의 양적인 자료로 측정된 안전효능감은 두가지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첫째는 청소년의 안전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양적인 지표로서 변량분석이나 상관분석에 활용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한 토착적인 표상을 분석하기 위해, 안전효능감 상하집단으로 질적인 분류를 하는데 활용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효능감이 5점 척도(전혀 못한다-1,

약간 못한다-2, 보통이다-3, 약간 잘한다-4, 매우 잘한다-5)로 측정되었으므로, 각 문항의 평균값이 3점 이하인 집단을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으로, 3점 이상인 집단은 안전효능감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안전효능감 측정문항에 한 문항이라도 응답을 안 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분류한 두 집단에 속한 응답자 수는 낮은 안전효능감 집단이 468명(47.0%), 높은 안전효능감 집단이 528명(53.0%)으로 구성되었다.

결 과

학교수준별 성별 안전효능감의 차이

학교수준별 성별 안전효능감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안전효능감 총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학교수준별 성별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며, 주효과에서 학교수준별로는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주효과는

표 3. 학교수준별 성별 안전효능감의 차이

변인	변산원	df	MS	F
자기조절	주효과 : 학교수준 (1)	4	10.34	2.11 ***
	성별 (2)	1	.28	.65
	상호작용 : (1)×(2)	4	.20	.46
주위사람 도움	주효과 : 학교수준 (1)	4	8.01	25.35 ***
	성별 (2)	1	2.38	7.54 **
	상호작용 : (1)×(2)	4	.04	.12
주위환경 조절	주효과 : 학교수준 (1)	4	4.17	11.84 ***
	성별 (2)	1	1.43	4.06 *
	상호작용 : (1)×(2)	4	.27	.78
안전효능감	주효과 : 학교수준 (1)	4	5.56	27.53 ***
	성별 (2)	1	.57	2.83
	상호작용 : (1)×(2)	4	.06	.31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학교수준별 성별 안전효능감 평균과 표준편차

내 용	학 교 수 준					성 별		전체 X̄ (SD)
	초등학생 X̄ (SD)	중학생 X̄ (SD)	인문고 X̄ (SD)	실업고 X̄ (SD)	대학생 X̄ (SD)	남 X̄ (SD)	녀 X̄ (SD)	
자기조절	3.41 (.66) ^b	2.88 (.65) ^a	2.98 (.70) ^a	2.86 (.65) ^a	2.92 (.60) ^a	3.01 (.69)	3.00 (.68)	3.00 (.68)
주위사람 도움	3.87 (.58) ^d	3.62 (.55) ^c	3.47 (.55) ^b	3.40 (.58) ^{ab}	3.35 (.56) ^a	3.47 (.62)	3.62 (.56)	3.54 (.59)
주위환경 조절	3.56 (.62) ^c	3.34 (.55) ^b	3.25 (.61) ^{ab}	3.16 (.59) ^a	3.31 (.60) ^b	3.27 (.64)	3.37 (.57)	3.32 (.61)
안전효능감	3.34 (.48) ^d	3.06 (.42) ^c	3.00 (.44) ^{bc}	2.90 (.47) ^a	2.96 (.44) ^{ab}	3.01 (.50)	3.09 (.44)	3.05 (.47)

없었다. 안전효능감의 평균값을 제시한 표 4에서 Duncan검증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평균 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높은 값을 보이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값이 의미하는 바를 볼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3점 이상이므로 안전효능감이 높은 방향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3점 이하이므로 안전효능감이 낮은 방향으로 평균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초등학생의 안전효능감이 가장 높고 오히려 학교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효능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변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기조절 효능감, 주위사람도움 효능감, 주위환경조절 효능감 모두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며, 학교수준별 주효과는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참고). 성별 주효과는 주위사람도움($p < .01$)과 주위환경조절($p < .05$)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표 4 참고), 자기조절 효능감은 초등학생이 다른 집단보다 가장 높았다. 주위사람도움 효능감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이며, 대학생이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높은 값을 보였다. 주위환경조절 효능감의 경우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과 대학생이며,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주위사람도움 효능감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평균값이 더욱 높았다. 이러한 하위변인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안전효능감 총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향

과 일치하여 하위변인별로도 초등학생의 안전효능감이 가장 높고,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안전효능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4에서 전체 집단의 안전효능감 평균값이 3.0 정도의 값을 나타내므로,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높거나 낮지 않은 보통수준의 안전효능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안전효능감과 가정환경, 학업성적의 관계

청소년의 안전효능감과 가정환경 및 본인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정환경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를 의미한다. 안전효능감 총점과 사회경제적지위 총점 및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측정문항들과의 상관을 구한 결과를 보면, $r = .16 \sim .26$ 사이의 정적인 값을 나타내고 있다. 세 하위변인들 중에서는 특히 주위사람도움 효능감이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r = .16 \sim .25$ 로 다른 두 하위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측정문항들 중에서는 특히 가정의 경제생활정도가 안전효능감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안전효능감이 전반적으로 더 높으며, 특히 주위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능감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표 5. 안전효능감과 가정환경, 학업성적의 관계

	안전효능감	자기조절	주위사람 도움	주위환경 조절
가정환경				
사회경제적지위	.19***	.12***	.20***	.14***
부의 교육정도	.17***	.08**	.20***	.12***
모의 교육정도	.19***	.13***	.21***	.12***
가정경제생활정도	.26***	.16***	.25***	.20***
부의 직업	.16***	.10**	.16***	.13***
학업성적	.25***	.19***	.21***	.21***

** $p < .01$, *** $p < .001$

지위 중에서는 부모의 교육정도나 직업수준보다는 가정의 경제생활정도가 청소년의 안전효능감과 더욱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효능감과 학업성적의 관계를 보면(표 5 참고), $r = .19 \sim .25$ 의 정적인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안전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업성적도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안전효능감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의 분석 결과는 표집대상 중에 초, 중,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의 안전효능감 총점에서 $r = .16$ 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안전효능감 총점은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안전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안전효

능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안전효능감 하위변인들간의 관계에서도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청소년 자녀의 안전효능감과 약간 더 높은 상관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정적인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상관의 정도가 낮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청소년의 안전효능감과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

청소년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을 다섯가지 측면, 즉 안전사고의 내용, 안전사고 후의 사회적 지원, 안전사고 후 사회적 지원의 내용, 안전사고의 원인,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의 면에서 분석한 결과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은 청소년의 안전사고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

표 6.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안전효능감 관계

부모 \ 자녀	안전효능감	자기조절	주위사람도움	주위환경조절
안전효능감	.16*** / -	.09* / -	.14*** / -	.18*** / .10**
자기조절 효능감	.08* / -	- / -	- / -	.09*** / -
주위사람도움 효능감	.15*** / .08*	.07* / -	.15*** / -	.15*** / .11**
주위환경조절 효능감	.16*** / -	.09** / -	.14*** / .08*	.18*** / .08*

* $p < .05$, ** $p < .01$, *** $p < .001$, 부/모

표 7. 안전효능감 수준별 안전사고 내용

내용	전체 (%)	안전효능감	
		고 (%)	저 (%)
1. 놀이/장난 중 사고	255 (23.9)	130 (24.8)	108 (23.3)
① 장난치다 다칩	154 (14.5)	78 (14.9)	69 (14.9)
② 레저 도중 다칩	64 (6.0)	33 (6.3)	26 (5.6)
③ 놀이터 놀이기구에서 상해	37 (3.5)	19 (3.6)	13 (2.8)
2. 교통사고	246 (23.1)	120 (22.9)	105 (22.7)
① 교통사고	96 (9.0)	51 (9.7)	34 (7.3)
② 자전거 사고	74 (6.9)	29 (5.5)	43 (9.3)
③ 오토바이 사고	39 (3.7)	20 (3.8)	15 (3.2)
④ 교통사고로 입원	37 (3.5)	20 (3.8)	13 (2.8)
3.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외상	176 (16.5)	91 (17.4)	76 (16.4)
① 가벼운 외상	77 (7.2)	40 (7.6)	33 (7.1)
② 유리/칼에 베임	47 (4.4)	21 (4.0)	22 (4.8)
③ 넘어져서 다칩	42 (3.9)	24 (4.6)	17 (3.7)
④ 못에 찔림	10 (0.9)	6 (1.1)	4 (0.9)
4. 운동 중 다칩	111 (10.4)	55 (10.5)	48 (10.4)
① 팔/다리 골절	44 (4.1)	17 (3.2)	25 (5.4)
② 신체 외상	35 (3.3)	19 (3.6)	13 (2.8)
③ 인대 늘어남	32 (3.0)	19 (3.6)	10 (2.2)
5. 계단에서 사고	93 (8.7)	45 (8.6)	39 (8.4)
① 넘어져 신체 외상	53 (5.0)	28 (5.3)	19 (4.1)
② 넘어져 팔/다리 골절	27 (2.5)	11 (2.1)	14 (3.0)
③ 넘어져 인대 늘어남	13 (1.2)	6 (1.1)	6 (1.3)
6. 화상	83 (7.8)	35 (6.7)	44 (9.4)
① 뜨거운 물/음식에 화상	55 (5.2)	27 (5.2)	25 (5.4)
② 난로/가스에 화상	14 (1.3)	4 (0.8)	9 (1.9)
③ 기계류/집기에 화상	14 (1.3)	4 (0.8)	10 (2.2)
7. 기타	101 (9.5)	48 (9.2)	43 (9.3)
① 없음	41 (3.8)	14 (2.7)	20 (4.3)
② 기타	33 (3.1)	18 (3.4)	13 (2.8)
③ 질병으로 입원	27 (2.5)	16 (3.1)	10 (2.2)
계	1,065 (100)	524 (100)	463 (100)

면, '놀이/장난 중 사고'와 '교통사고'가 각각 2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외상' 및 '운동 중 다침'이 10% 이상의 반응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계단에서 사고'와 '화상'이 포함되었다. 안전효능감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전체집단의 반응결과와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가 가장 컸던 사례들로는 놀이나 장난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와 교통사고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를 당한 후에 주위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반응을 정리한 결과가 표 8이다. 전체집단의 반응결과를 보면 '가족'이 71%로 2/3 이상의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친구' 및 '주위사람'이 10% 내외의 반응율을 나타내며, '의사 및 간호사'는 약 3%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 중에서 '부모님'이 30%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어머니'로서 약 26%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반응한 경우는 2.9%로 훨씬 낮았다.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후에 청소년들은 가족

표 8. 안전효능감 수준별 안전사고 후 사회적 지원

내 용	전체 (%)	안전효능감	
		고 (%)	저 (%)
1. 가족	719 (70.9)	366 (72.8)	302 (68.5)
① 부모님	303 (29.9)	160 (31.8)	120 (27.2)
② 어머니	260 (25.6)	128 (25.4)	111 (25.2)
③ 가족	88 (8.7)	41 (8.2)	42 (9.5)
④ 아버지	29 (2.9)	17 (3.4)	11 (2.5)
⑤ 친척	22 (2.2)	14 (2.8)	8 (1.8)
⑤ 형제	17 (1.7)	6 (1.2)	10 (2.3)
2. 친구	128 (12.6)	57 (11.3)	65 (14.7)
① 친구	120 (11.8)	52 (10.3)	62 (14.1)
② 아르바이트 직장동료	8 (.8)	5 (1.0)	3 (.7)
3. 주위사람	91 (9.0)	40 (8.0)	44 (10.0)
① 선생님	44 (4.3)	20 (4.0)	19 (4.3)
② 이웃	41 (4.0)	18 (3.6)	22 (5.0)
③ 경찰/119	4 (.4)	2 (.4)	1 (.2)
④ 보험회사 직원	2 (.2)	-	2 (.5)
4. 의사/간호사	32 (3.2)	16 (3.2)	13 (2.9)
5. 없음	19 (1.9)	9 (1.8)	9 (2.0)
6. 기타	25 (2.5)	15 (3.0)	8 (1.8)
① 기타	17 (1.7)	9 (1.8)	7 (1.6)
② 가해자	8 (.8)	6 (1.2)	1 (.2)
계	1,014 (100)	503 (100)	441 (100)

표 9. 안전효능감 수준별 안전사고후 사회적 지원의 내용

내 용	전체 (%)	안전효능감	
		고 (%)	저 (%)
1. 병원후송/응급조치	398 (40.5)	183 (37.3)	189 (44.4)
① 병원후송	218 (22.2)	106 (21.6)	99 (23.2)
② 응급조치	81 (8.2)	35 (7.1)	40 (9.4)
③ 부축	77 (7.8)	33 (6.7)	40 (9.4)
④ 사고처리	19 (1.9)	7 (1.4)	9 (2.1)
⑤ 구조	3 (.3)	2 (.4)	1 (.2)
2. 간호	273 (27.8)	149 (30.4)	109 (25.6)
① 간호	222 (22.6)	117 (23.9)	93 (21.8)
② 잔심부름 합	51 (5.2)	32 (6.5)	16 (3.8)
3. 치료	177 (18.0)	94 (19.2)	70 (16.4)
4. 정서적 위로	86 (8.7)	44 (9.0)	35 (8.2)
① 정신적 위로	53 (5.4)	23 (4.7)	24 (5.6)
② 정신적 안정	24 (2.4)	15 (3.1)	9 (2.1)
③ 격려/조언	9 (.9)	6 (1.2)	2 (.5)
5. 일의 분담	25 (2.5)	12 (2.4)	11 (2.6)
① 업무분담	23 (2.3)	11 (2.2)	10 (2.3)
② 가사분담	2 (.2)	1 (.2)	1 (.2)
6. 경제적 도움	13 (1.3)	4 (.8)	6 (1.4)
7. 없음	11 (1.1)	4 (.8)	6 (1.4)
계	983 (100)	490 (100)	426 (100)

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효능감수준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족' 범주에 대해 안전효능감이 높은 집단(72.8%)이 낮은 집단(68.5%)보다 반응율이 높고, '친구' 범주에 대해서는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14.7%)이 높은 집단(11.3%)보다 높은 반응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 안전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안전효능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친구

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사고 후에 주위사람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받은 도움의 내용 면에서 분석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집단의 반응을 보면, '병원후송/응급조치' 범주가 40.5%로 과반수에 가깝고, 그 다음으로 '간호'가 20% 이상, '치료'가 10% 이상의 반응율을 보이고, 이외에도 '정서적 위로'가 5% 이상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안전효능감수준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범주들에 대한 반응순서는 전체집단에서와 동일하였다.

표 10. 안전효능감 수준별 안전사고 원인

내용	전체 (%)	안전효능감	
		고 (%)	저 (%)
1. 자기조절 결여: 부주의	602 (59.3)	286 (58.2)	276 (63.9)
① 자신의 부주의	540 (53.1)	256 (52.1)	248 (57.4)
② 급히 서두름/뛰어다님	33 (3.3)	18 (3.7)	13 (3.0)
③ 방심	29 (2.9)	12 (2.4)	15 (3.5)
2. 상대의 부주의	140 (14.1)	69 (14.0)	61 (14.2)
① 상대의 부주의	88 (8.9)	40 (8.1)	43 (10.0)
② 서로의 부주의	52 (5.2)	29 (5.9)	18 (4.2)
3. 과로	61 (6.1)	39 (7.9)	20 (4.6)
4. 시설/환경 불량	57 (5.7)	32 (6.5)	19 (4.4)
① 시설 불량	36 (3.6)	18 (3.7)	15 (3.5)
② 열악한 주변환경	21 (2.1)	14 (2.9)	4 (.9)
5. 안전의식 결여	55 (5.5)	27 (5.5)	25 (5.8)
① 안전 불감증	33 (3.3)	16 (3.3)	16 (3.7)
② 안전교육 미흡	8 (.8)	6 (1.2)	2 (.5)
③ 장비에 대한 지식/경험부족	7 (.7)	2 (.4)	3 (.7)
④ 안전 장치 안함	7 (.7)	3 (.6)	4 (.9)
6. 법규/규칙 위반	41 (4.1)	22 (4.5)	14 (3.2)
① 교통법규 위반	34 (3.4)	20 (4.1)	10 (2.3)
② 안전수칙 불이행	7 (.7)	2 (.4)	4 (.9)
7. 기타	36 (3.6)	16 (3.3)	17 (3.9)
① 기타	26 (2.6)	11 (2.2)	12 (2.8)
② 없음	10 (1.0)	5 (1.0)	5 (1.2)
계	992 (100)	491 (100)	432 (100)

표 10은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해 청소년들이 반응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집단의 반응을 보면, '자기조절 결여: 부주의'가 59.3%로 과반수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상대의 부주의'가 10% 이상을, '과로' '시설/환경 불량' '안전의식 결여'가 5% 이상의 반응율을 보이고, 이외에도 '법규/규칙 위반' 범주가 포함되었다.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있는 '자기조절 결여: 부주의' 범주에

는 '자신의 부주의' 항목이 53.1%로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이외에 '급히 서두름/뛰어다님' '방심'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안전효능감수준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자기조절 결여: 부주의' 범주의 경우에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63.9%)이 높은 집단(58.2%)보다 반응율이 더 높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설/환경 불량' 범주에서는 안전효능감이 높은 집단(6.5%)이 낮은 집단(4.4%)

표 11. 안전효능감 수준별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	전체 (%)	안전효능감	
		고 (%)	저 (%)
1. 자기조절: 주의/조심	723 (74.7)	374 (77.8)	299 (71.0)
① 주의/조심	444 (45.9)	225 (46.8)	185 (43.9)
② 위험한 장난/행위 안함	175 (18.1)	87 (18.1)	81 (19.2)
③ 뛰거나 서들지 않음	66 (6.8)	38 (7.9)	22 (5.2)
④ 위험한 장소에 가지 않음	38 (3.9)	24 (5.0)	11 (2.6)
2. 없음	83 (8.6)	24 (5.0)	55 (13.1)
3. 건강관리	52 (5.4)	26 (5.4)	23 (5.5)
① 치료	41 (4.2)	21 (4.4)	18 (4.3)
② 충분한 휴식	11 (1.1)	5 (1.0)	5 (1.2)
4. 법규/규칙 지킴	51 (5.3)	25 (5.2)	20 (4.8)
① 교통법규 지킴	33 (3.4)	14 (2.9)	13 (3.1)
② 안전 수칙 준수	18 (1.9)	11 (2.3)	7 (1.7)
5. 기타	59 (6.1)	32 (6.7)	24 (5.7)
① 시설/환경정비	24 (2.5)	13 (2.7)	10 (2.4)
② 기타	22 (2.3)	10 (2.1)	10 (2.4)
③ 안전 교육	13 (1.3)	9 (1.9)	4 (1.0)
계	968 (100)	481 (100)	421 (100)

보다 더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안전효능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안전사고가 '자기조절의 결여: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더 많고, 안전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시설이나 환경의 불량'에 기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더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표 11은 안전사고 후에 사고재발의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에 대해 반응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1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조절: 주의/조심'이 74.7%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없음'이 8.6%로 두 번째로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며, 이외에도 '건강관리' 및 '법규/규칙 지킴'이 5% 이상의 반응율을 보이고 있다.

안전효능감수준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자기조절: 주의/조심' 범주에 대해 안전효능감이 높은 집단

(77.8%)이 낮은 집단(71.0%)보다 더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이와 반대로 '없음' 범주에 대해서는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13.1%)이 높은 집단(5.0%)보다 훨씬 반응율이 높다.

논의 및 결론

한국 청소년의 토착심리적 특성으로서 자기조절 경향성: 안전행동 맥락에서의 타당화

이 연구 결과로부터 확인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지각된 자기조절의 중요성이다. 청소년들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자기조절을 중요하게 표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전사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기조절: 주의/조심'에 해당하는 응답이 전체의 2/3를 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확인된다. 여기에서 주의하고 조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에 살아오면서 가장 피해가 컸던 안전사고가 난 후에 자기조절식의 대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기조절의 중요성은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지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자기조절의 결여, 즉 자기자신의 부주의에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인 직장인의 경우에도 안전행동을 위한 자기조절의 중요성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예컨대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은 작업자일수록 산업현장에서 안전행동을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영신, 박동현, 김의철, 1998).

이와 같이 한국 청소년들이 자기조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은 단지 안전과 관련된 행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성공의식(김의철, 박영신, 1998) 실패의식과 미래성취의식(박영신, 김의철, 1999) 등 성취와 관련된 의식(Kim, Park, & Park, 1999; Tak, Lee, Park, & Kim, 2001)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IMF시대 이전(김의철, 박영신, 1997)과 경제불황기(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관련 표상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양식으로 자기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같이 자기조절을 강조하는 태도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집단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어 왔다(박영신, 2000; 박영신, 김의철, 2000b). 자기조절능력은 성취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결과(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Chung, Park, & Kim, 2001)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여 준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에게 있어 자기조절의 경향은 매우 현저한 토착심리적인 특징이라는 설명

이 가능하다.

환경이해와 환경통제에 대한 표상의 결여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주의와 조심을 통한 자기조절이 도움이 되지만, 자기조절의 방식만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더 붙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안전사고 후에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시설이나 환경을 정비'했다는 반응은 전체 응답자의 2.5% 밖에 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조절: 주의/조심'에 74.7%나 반응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매우 대조적인 결과이다. 즉 한국의 청소년들은 안전사고 발생 후에 그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환경적인 통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지각에서도 '자기조절 결여: 부주의'에 대한 응답이 59.3%로 과반수를 훨씬 넘는데, '시설이나 환경 불량'은 5.7%로 응답자의 약 1/20에 해당하는 반응율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환경통제와 관련된 표상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구(김소선, 이은숙, 1998)에서도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가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박영신, 김의철, 송동빈, 박동현과 한상환(2000)이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해 면접한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안전의식의 결여로 인한 부주의가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부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표집대상들에서 안전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통제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안전한 환경은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독일에서 교통사고율이 매우 낮는데, 이는 신호등의 위치와도 무관하지 않다. 독일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모든 차량이 정지선 앞에

정확히 멈춰서는 것은, 신호등이 정지선 바로 위에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정지선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신호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두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도로표시를 하므로써 차량들의 엉킴을 방지하고, 홍콩에서는 버스가 정차해도 뒤따라오던 차의 진행을 막지 않도록 도로쪽으로 들어가게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조선일보, 2001년 5월 2일자)은 안전을 위해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단순히 아동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아동보호구역을 만든다든가, 아동보호차량이나 장치를 개발한다든가, 교통환경을 정비한다든가, 관계법규를 제정하는 등 환경조성의 측면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홍로, 2000)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전을 위해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산업재해자들에 대한 면접(박영신, 김의철, 송동빈, 박동현, 한상환, 2000)에서도 드러났다. 예컨대 안전망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전신마비라는 치명적인 장애가 오지 않았을 안전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가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조절 방식에만 집착하는 한국 사람들의 기존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환경통제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Park, & Kim, 1999) 나아가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함양하여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인간행동이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상호작용(Bandura, 1997)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안전한 행동을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의 함양과 이에 근거한 자기조절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환경의 조성도 안전한 행동을 유도해 내는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과 적당주의, '설마'심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안전사고 불감증이라는 병을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하나, 앓고 있다는 것이 이 연

구의 결과로부터 시사되고 있다. 즉 '설마 이런 안전사고가 또 일어나지는 않겠지' 하고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집단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추론은 본인에게 가장 피해가 컸던 안전사고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러한 사고의 재발을 위한 예방조치를 한 것이 '없다'는 반응이 두 번째로 높은 반응율(8.6%)을 보인다는 결과에 근거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무사안일주의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는, 비단 청소년집단에게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심리와 행동양식은 한국 사회 전반의 풍토와도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한국 사회의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보다 무사안일적으로 적당히 지나가는 자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적당주의식의 대처는 '설마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는 않겠지'하는 요행을 바라는 심리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안전행동과 관련된 심리현상과 이러한 심리의 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이있는 분석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서 부모의 중요성

피해가 큰 안전사고를 당한 후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으로서 의사나 간호원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의사나 간호원과 같은 의료관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고 후의 사회적 지원 제공자로 가족이 70.9%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서 부모의 중요성은, 선행연구들로부터 계속 확인되어 왔다. 부모는 인생에서 원하는 성취를 위해 가장 도움이 필요

한 사람으로 인식되고(김의철, 박영신, 1998), 높은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Min, Park, & Kim, 2001),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및 이탈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박영신, 김의철, 2000a) 확인되었다.

이와같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들의 경험적 자료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실은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다. 물론 서양의 연구결과도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최상진(2000)이 지적하는 바처럼,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는 서양의 부모-자녀관계와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가 갖는 토착적인 속성들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필요로 한다.

안전효능감수준 집단별 안전사고 표상의 차이

이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안전효능감 수준에 따라 안전사고와 관련된 표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안전사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비해 안전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주의하고 조심하는 경향이 있었다.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기조절의 결여로 인한 부주의에 대한 응답율이 높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안전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시설이나 환경의 불량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안전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안전사고 후에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았으며,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친구의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

특히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일수록 안전사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안전효능감이 안전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의 관계는 성인 작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박영신, 박동현, 김의철, 1998)에도 확인된 바 있다. 즉 안전효능감이 높은 작업자일수록, 안전한 행동을 실천하는 정도(자기조절

효능감, $r=.40$; 주위사람도움 효능감, $r=.39$; 주위환경조절 효능감, $r=.41$)가 높았으며, 그러한 작업자가 속한 회사가 타회사보다 상대적인 산업재해의 정도(자기조절 효능감, $r=-.26$; 주위사람도움 효능감, $r=-.18$; 주위환경조절 효능감, $r=-.20$)가 낮았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정리해 볼 때, 안전행동의 증진을 위해 학교교육현장에서 학습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함에 있어, 안전효능감의 증진방안에 대한 모색이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시사된다. 박영신, 김의철과 박동현(1999)이 제안한 산업현장에서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효능감의 증진방안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모델링을 통한 관찰학습' '구체적인 작업특성에 부합되는 안전효능감의 개발' '숙달모델링을 위한 모의상황과 실제상황에서의 응용' '안전행동의 단순 모방이 아닌 안전관련 기술의 생산적 활용' '안전과 관련된 자기조절 효능감의 중요성'.

학교수준에 따른 안전효능감의 차이

이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교수준별로 안전효능감에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가 가장 안전효능감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높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가장 낮았다. 또한 초등학교보다 대학생이 법규나 규칙을 위반하여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가 더 많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을 때, '법규나 규칙의 위반'도 하나의 의미있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대학생들이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더욱 실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은 초등학교보다 학교교육을 받은 연한이 객관적으로 더 길고 대학입학시험을 통해 선별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수칙을 불이행하여 사고를 경험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은 지식전달 위주의 한국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교육과정을 통해 안전의식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못하며, 안전행동이 학력수준과 정적인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교수준에 따른

안전효능감의 차이가 위험노출에의 빈도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단 안전효능감만이 아니라 다른 효능감수준도 학교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하강하고 있음이 관련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횡단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는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 여가시간활용효능감, 주위사람기대일치효능감이 낮아졌다. 이외에 학업성취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자기조절동기효능감도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되면서 현저하게 낮아졌다.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이 학교수준에 따라 하강하는 변화는 종단적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 4년에 걸쳐 종단적인 추적을 시도한 결과(Chung, Park, & Kim, 2001)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됨에 따라 학업성취효능감이 낮아졌다. 농촌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약 2년동안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Min, Park, & Kim, 2001)에서도, 학업성취효능감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 학습효능감 및 사회성효능감이 모두 하강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안전효능감을 비롯하여 여러 영역에서의 효능감이 낮아지는 경향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요구된다.

기타 논의점들

이상에서 논의한 외에, 이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몇가지 지적해야 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안전효능감은 본인의 학업·정적·정적 관계에 있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도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의 경제생활정도와 정적 상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안전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이 더 좋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해석된다. 예컨대 학업성취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더 좋다는 결과는 이미 많은 연구들(박영신, 김의

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Chung, Park, & Kim, 2001; Collins, 1982)에서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그러므로 안전효능감도 효능감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학업성적과 정적관계를 나타내는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떠한 직접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결과가 밝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경향을 확대해석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연구에서 청소년의 안전효능감을 측정하는 시도를 한 점은 의의가 있으나, 해석에 주의할 필요로 한다. 안전효능감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81$ 로 양호하였으나, 주위환경조절 효능감의 신뢰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신뢰로운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되며, 나아가서 청소년의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안전의식이나 안전행동에 있어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박영신, 김의철, 2001)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Hofstede(1995)는 국가문화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네 번째 차원으로 '불확실성 회피문화와 수용문화'를 지정한 바 있다. 불확실성 회피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된다. Hofstede가 불확실성 회피지수를 기초로, 50개국과 3개 지역의 지수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터키와 함께 16위와 17위를 차지하므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은 43위, 독일은 29위로서 한국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한국의 문화는, 미국보다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하며 안정을 추구하고, 법률과 규칙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명료하다. 불확실한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보다 안정된 것에 의해 동기화되는 성향으로 인해, 안전한 행동을 많이 하고 안전사고도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이와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불확실성 회피 강도와 그 나라의 고속도로 상에서 허용하는 최대속력 간의 정적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Hofstede, 1995)는, 이에 대한 가능한 답을 시사한다. 즉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강한 나라의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더욱 차를 빨리 운전하였는데, 이와 같이 차를 빨리 운전한다는 것은 곧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모험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익숙한 모험이며, 이러한 것은 불확실성 회피 문화에서도 거리낌없이 추구된다는 것이다. 즉 불확실성 수용문화에서는 애매한 상황과 익숙치 않은 모험에 대해 편하게 느낀다면, 불확실성 회피문화에서는 애매한 상황과 익숙치 않은 모험을 두려워하지만, 익숙한 모험은 수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불확실성 회피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안전한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그 결과 안전사고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청소년의 안전사고 표상과 안전행동의 토착적 특성들을 설명하는 체계적인 이론 틀은 문화적 토양의 맥락 속에서 계속 탐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소선, 이은숙 (1998).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 및 관련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 *대한간호학회지*, 29(1), 117~126.
- 김의철, 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의철, 박영신 (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의철, 박영신 (1999). IMF시대가 한국인의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57~79.
- 김의철, 박영신 (2001). 한국인의 자기효능감과 행동 특성. 박영신 김의철 옮김.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599~618. 서울: 교육과학사.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노정근 (1998). 학교 안전과목 교육과정과 안전사고 실태에 관한 고찰. 한국안전교육학회, *한국안전교육학회지*, 2(1), 5~15.
- 대한손해보험협회. (2000). 서울 부산 도쿄 오사카 교통질서 준수율 비교. 재인용 조선일보 2001년 5월 2일자. 테마기획.
- 박영신 (2000).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67~97.
- 박영신, 김의철 (1999).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7(3), 139~172.
- 박영신, 김의철 (2000a).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 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이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0b).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85~117.
- 박영신, 김의철, (2001). 한국 청소년의 안전의식 실태와 문제점 분석. 한국안전교육학회 2001년도 하계 학술세미나. 청소년 안전교육 실천 방법 모색. 11~30
- 박영신, 김의철, 박동현 (1999).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적 시사: 규제완화정책의 영향 분석과 안전효능감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교육학회, *사회교육학연구*, 5(2), 161~193.

- 박영신, 김의철, 송동빈, 박동현, 한상환 (2000). 기업의 안전문화 진단과 안전교육에 대한 합의: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안전교육학회, 한국안전교육학회지, 3(1), 5~39.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박동현, 김의철 (1998).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효율적 안전교육의 방향 탐색: 작업자, 안전 관리자, 공무원의 안전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교육학회, 사회교육학연구, 4(1), 27~307.
- 이경자, 이정렬, 강규숙, 한정석 (1995). 한국의 사고 발생 실태와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대한간호학회, 대한간호학회지, 25(2), 362~371.
- 이민아 (1993). 주거 안전사고의 실태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철 (1991). 운전자의 교통행동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9(1), 19~28.
- 이순철 (2000a). 교통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순철 (2000b).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행동으로 살펴본 보행자 교통사고의 원인과 특성.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159~174.
- 이홍로 (2000). 아동교통안전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교육학회, 한국안전교육학회지, 3(1), 221~265.
- 조선일보 (2001). 5월 2일자 9면. 테마기획: 교통사고 OECD 1위.
- 최상진 (1990). 사회적 표상이론에 대한 한 고찰.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9, 74~86.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 (2000). 아동의 사망사고 유형. www.nso.go.kr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1). 산업재해통계. www.kosha.or.kr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Chung, K., Park, Y. S., & Kim, U. (2001). The change, formation, and influence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AASP), "Asian Social Psychology in the 21st Century"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Collins, J. L. (1982). Self-efficacy and ability in achievem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York.
- Hamm, B. M., Park, Y. S., Kim, U. (2001). Korean students and adults' self-concept: An indigenous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AASP), "Asian Social Psychology in the 21st Century" p. 134.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Han, K. H., Park, Y. S., Kim, U. (2001). Koreans' consciousness about the safety: An indigenous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AASP), "Asian Social Psychology in the 21st Century" p. 137.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Hofstede, G. (1995).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 Hills. 차재호 나은영 역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문화간 협력과 세계 속에서의 생존. 서울: 학지사.
- Kim, U. (2000). Indigenous, cultural,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A theoretical, conceptual, and epistemological analysi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265~287.
- Kim, U. & Berry, J. W. (1993). *Indigenous Psychologies:*

-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 Kim, U., Park, Y. S., & Park, D. H. (1999). The Korean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8(4), 451~464.
- Kim, U., Park, Y. S., & Park, D. H. (2000). The challenge of cross-cultural psychology: The role of the indigenous psycholog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1), 6, 3~75.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 Min, B., Park, Y. S., Kim, U. (2001).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AASP), "Asian Social Psychology in the 21st Century" p. 217.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Park, Y. S., & Kim, U. (1999). The educational challenge of Korea in the global era: The role of family, school, and government.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 *Education Journal*, 27(1), 91~120. Special Issue: Conference on Restructuring the knowledge base of education in Asia.
- Sinha, D. (1993). Indigenization of psychology in India and its relevance. In Kim, U. & Berry, J. W. (1993). *Indigenous psychologies: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 Vol 17.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pp. 30-43). Sage Publications.
- Tak, S. Y., Lee, S. J., Park, Y. S., Kim, U. (2001). Reanalyzing Koreans' achievement: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AASP), "Asian Social Psychology in the 21st Century" p. 264.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1 차원고접수일 : 2001. 8. 1
최종원고접수일 : 2001. 9. 8

Adolescents' causal attribution of accidents and their cognitive representation safety and safety efficacy

Uichol Kim
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Young-Shin Park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Donghyun Park
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adolescents' causal attribution of accidents and their cognitive representation of safety using the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safety efficacy beliefs with a sample of primary, junior high, senior high, and university students. A total sample of 1,074 adolesc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primary school students=200, junior high school students=241, preparatory high school students=206,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206, and university students=206).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st severe accidents occurred during recreational activities, followed by traffic accidents, and majority of adolescents perceive that their lack of self-regulation, specifically their inattentiveness, was the cause of accidents. When they were involved in accidents, they were most likely to receive support from their parents. To avoid future accidents, adolescents responded that they needed to regulate themselves by being cautious and careful. In contrast, very few respondents pointed out problems with facilities or environmental factors. In terms of safety efficacy beliefs, adolescents had moderate level of safety efficacy belief, with primary school students having the highest mean and the university students having the lowest mean. Finally, safety efficacy belief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academic grade.

Key words : Safety efficacy, causal attribution of accidents,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self-regulation

부록: 질문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당신은 여러 가지 사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그러한 경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무기명으로 응답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피해가 가장 컸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예: 교통사고로 입원함,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짐, 스케이트 타다가 팔이 부러짐, 불에 화상을 입음)

2.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당신이 경험한 가장 큰 피해는 무엇입니까?

3. 그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사고를 당한 후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5.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았습니까?

6. 그러한 도움이 얼마나 효과적이었습니까? 해당하는 ()에 V표 하십시오.
()매우 효과적이었다 ()약간 효과적이었다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7. 사고가 난 후에 그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8. 그러한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이었습니까? 해당하는 ()에 V표 하십시오.
()매우 효과적이었다 ()약간 효과적이었다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9.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본인 : _____
- 가정 : _____
- 학교 : _____
- 기업 : _____
- 정부 : _____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 안에 기록하십시오.

전혀 못한다	약간 못한다	보통 이다	약간 잘한다	매우 잘한다
1	2	3	4	5

- () 당신은 피곤하고 짜증날 때에도 일을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
- () 당신은 안전을 위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습니까 ?
- () 당신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주위환경을 얼마나 잘 정돈할 수 있습니까 ?
- () 당신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일을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
- () 가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신은 부모님의 도움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습니까 ?
- () 학교환경이 안전하도록, 당신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습니까 ?
- () 급한 일이 있어도 당신은 무단횡단하지 않고 신호등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습니까 ?
- ()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친구들과 얼마나 잘 협조할 수 있습니까 ?
- () 당신은 가정환경을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
- () 사고 나지 않도록, 당신은 얼마나 자기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
- () 당신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생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
- () 당신은 안전장치(예: 자동차 안전벨트 등)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
- () 당신은 힘들어도 일을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
- () 당신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습니까 ?
- ()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배경정보

다음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하십시오.

- 1. 성별은 ? ① 남 ② 여
- 2. 나이는 ? (만)세
- 3. 현재 다니는 학교는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인문고 ④ 실업고 ⑤ 대학교
- 4. 최근 5년 동안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간 횟수는 ? (번)
- 5. 본인의 평균성적은 ? ① 수/A ② 우/B ③ 미/C ④ 양/D ⑤ 가/F
- 6.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 ① 초등 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 7.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 ① 초등 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 8. 현재 가정경제생활정도는 ? ① 하 ② 중-하 ③ 중-중 ④ 중-상 ⑤ 상
- 9. 부모님의 직업은 ?

직업명

- () () ① 무직 : 주부, 퇴직, 실직
- () () ① 단순노동 : 파출부, 청소원, 행사직, 노무직, 수위, 점원
- () () ② 반숙련직 : 목수, 정원사, 농부, 어부, 광부, 이/미용사, 판매업자, 조련사, 요리사
- () () ③ 숙련직 : 운전기사, 기능공, 기술자(기계 정비 및 수리), 자영농부, 비서, 보모
- () () ④ 연예인/운동선수 : 탤런트, 배우, 가수, 아나운서, 모델, 운동선수, 경호원, 만화가
- () () ⑤ 자영업 : 소매상인, 서비스업, 개인택시, 회사 평사원, 순경, 영세기업 사장
- () () ⑥ 사무직 : 회사 직원(대리, 과장) 하급 공무원, 스텝어디스, 직업군인(대졸)
- () () ⑦ 전문직 : 교사, 간호사, 약사, 컴퓨터 전문가, 성직자, 기자, 예술가, 건축설계사
- () () ⑧ 관리직 : 회사의 부장, 정부의 국장, 과수원 농장주, 중소기업 사장, 국회의원
- () () ⑨ 고위 전문직 : 판검사, 변호사, 외교관, 대학 교수, 대기업 사장 의사